

함평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전남 10번째



전남도 가축 방역요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한 오리농장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함평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

폐사증가 신고 검사 결과 4일 'H5형 AI 항원' 검출 검출농장 포함 1km 내 농장 12만7000마리 살처분

남도가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사 증가 신고를 한 함평군 엽다면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오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올 겨울 들어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H5형 AI항원' 검출은 이번이 누적 10번째이다.

항원 검출 농장에선 닭 8만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3일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되자 조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차량 14대를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항원 검출 농장을 포함해 반경 1km 내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2만 7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를 특별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전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집중소독과 임상예찰을 진행 중이며, 방역지역 32개 농장과 2개 역학농장에 대해선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0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9건, 야생조류 12건이다.

함평=김광준기자



광주전남병무청,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김영명)은 지난 2일 제10회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하였다.

최이슬기자



광주지방보훈청-LG이노텍(주) 노동조합,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광주지방보훈청(청장정홍식)은 최근 김치타운에서 LG이노텍(주) 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이규채) 봉사단과 함께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선옥기자



완도해경 P-56경, 최우수 닥터경비함정 선정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22년 서해경 최우수 닥터경비함정'에 P-56 경비정이 선정되어 명패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2022년도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2일 나주경찰서 2층 영산마루에서 2022년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주 동부소방, 겨울철 공장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공장용접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주의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담양소방, 관서장 방문 노인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담양소방서는 최근 박상래 서장이 관내 화재취약시설인 담양노인복지타운과 심청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화재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전남 화물연대 “과로·과속·과적 막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노동자 500여명 파업 12일째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운수 노동자들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최저임금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는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노동의례, 연대사, 투쟁사, 투쟁가 제창 순으로 열렸다. 노동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 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투쟁가를 부르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화물운송 노동

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형 화물차는 사고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기며 무고한 희생자를 봐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있다”며 “불법인 과적을 강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코카콜라공장 정문 앞에서 오버백주 후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

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최이슬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빨라지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마스크를 쓴 시민과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다.

신고 출동 뒤 복귀하던 순찰차와 택시 충돌...3명 경상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광주에서 신고 출동 뒤 복귀하던 순찰차와 택시와 충돌해 경찰관 2명과 승객 1명이 다쳤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58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에서 A경위가 몰던 지구대 순찰차와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경위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택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동취재본부

당시 순찰차는 출동을 갔다가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순찰차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직진하다 녹색 신호에 주행하던 택시 운전석 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내년 14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가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내년 14개소로 확대한다.

5일 여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에 이어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전문적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역 특화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 4곳으로, 13곳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특화상담소는 개소당 2명의 상담사가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점검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지역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은 총 1만3577건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754건이었다. 김재환기자